

류현진, MLB 통산 60승 달성

양키스전서 6⅓이닝
4피안타 1실점 비자책
시즌 평균자책점 1.89 ↓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MLB 진출 이후 통산 60승이자 올 시즌 첫 승을 수확했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볼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 6⅓이닝 4피안타 1실점 비자책을 기록했다.

최고 92.4마일(약 148.7km)의 포심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커터, 커브 등을 골고루 섞어 양키스 타선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투구 수는 95개, 볼넷은 1개만 내주고 삼진은 7개를 속아냈다.

팀이 6-1로 앞선 7회 마운드를 내려간 류현진은 토론토가 7-3으로 이기면서 시즌 첫 승을 따냈다. 동시에 메이저리그 통산 60승도 달성했다.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60승 고지를 밟은 건 ‘코리안 특급’ 박찬호(124승) 이후 류현진이 두 번째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1.89까지 내려갔다.

1회 첫 타자 DJ 르메이휴에게 안타를 내주며 출발했다. 3루수 김숙한 방면으로 향한 타구가 느리게 흘러가며 내야 안타가 됐다.

그러나 무사 1루에서 지안카를로 스탠튼에게 주무기 체인지업으로 땅볼을 유도, 2루수 더블플레이로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았다. 후속 애런 지지는 1볼-2스트라이크에서 3구째 커터로 투킹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2-0으로 앞선 2회에도 패투가 계속됐다. 현란한 볼배합과 날카로운 제구로 게리 산체스-애런 힉스-루그레도 오도어를 이어지는 양키스 타선을 삼진으로 속아냈다.

3-0으로 달아난 3회는 공 8개로 막았다. 지오바니 아셀라와 클린트 프레이저를 각각 땅볼, 뜬공으로 처리했고 제이 브루스도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양키스 타자들은 류현진 공력에 애를 먹었다. 4회 선두 르메이휴는 낮은 코스로 걸쳐 들어온 포심 패스트볼에 삼진을 당하자 구심에 불만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13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더니든의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2회 투구하고 있다.

을 드러내기도 했다. 류현진은 흔들림이 없었다. 스탠튼을 중견수 뜬공, 저지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12타자 연속 발타 행진을 벌이던 류현진은 5회 1사 후 힉스에게 좌완 안타를 맞았다. 그러나 곧바로 오도어에 2루수 더블플레이를 끌어내 이닝을 마쳤다.

6-0으로 앞선 6회 위기를 맞았다. 삼진으로 2개의 아웃카운트를 가볍게 잡은 뒤 브루스에게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맞았다. 후속 르메이휴는 볼넷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2사 1, 2루에서 ‘강타자’ 스탠튼을 투수 땅볼로 직접 돌려세웠다.

유일한 실점은 7회 나왔다. 수비가 아쉬웠다.

류현진은 1사 후 산체스에 땅볼을 유도했다. 그러나 타구를 잡은 3루수 캐번 비지오의 짧은 송구를 1루수 게레로 주니어가 포구하지 못했다. 이어진 1사 1루에서는 힉스에 좌완 2루타를 맞았다. 1사 2, 3루에서 오도어를 2루수 땅볼로 정리했지만 그 사이 3루 주자 산체스가 홈을 밟았다.

류현진의 시간은 여기까지였다. 토론토는 7회 2사 3루에서 투수를 데이비드 펠프스로 교체했다. 펠프스는 어셀라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고 7회를 마쳤다.

토론토 타선은 화려한 타격으로 류현진의 승리를 지원했다. 토론토는 2회부터 5회까지, 매 이닝 점수를

쌓아냈다. 2회 안타와 몸에 맞는 공, 볼넷으로 일군 2사 만루 찬스에서 조쉬 팔라시오스의 선제 2타점 적시타로 앞서갔다. 3회에는 랜달 그리치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보냈다.

4회 마커스 시미언의 좌완 솔로포, 게레로 주니어의 적시타로 5-0까지 달아났다. 5회에는 로우리 텔레즈가 우중간 솔로 이치를 때려냈다.

여유있게 앞서가던 토론토는 8회초 세 번째 투수 조던 로마노가 2실점하며 6-3으로 쫓겼다. 그러나 8회말 비셋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얻어내며 양키스의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뉴시스



‘뒷심 작렬’

전주대 김민준, 아시아 레슬링선수권 크레코로만형 130kg서 동메달 획득

전주대 김민준 선수(운동처방학과)가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1년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 크레코로만형 130kg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김민준 선수는 이라크 알 타미미(Al Tameemi) 선수를 상대로 가쁜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알립칸 스투드코프(Alimkhan syzdykov) 선수와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하며 승점을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김 선수는 3위~5위 결정전에서 무서운 뒷심을 보였다. 일본 스타 오쿠무라(Sota Okumura) 선수를 상대로 옆굴리기로 8점을 획득하는 등 9대 0으로 테크니컬 풀승을 거두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준 선수는 현재 3학년으로, 1학년 때부터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2019)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학 레슬링대회(2020)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신인답지 않은 뛰어난 실력으로 국가대표 지도자들에게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가대표로 발탁, 3월부터 선수촌 생활을 하며 차근차근 큰 무대 경험도 쌓아올리며 기량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김민준 선수는 체력과 기술, 경험 등을 꾸준히 키워 이번 동메달을 발판으로 향후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다. 김민준 선수는 “오늘 하는 경기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경기에 임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어린 나이에 외국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등 좋은 경험을 쌓고, 남은 불가리아 전지훈련 일정도 무사히 마쳐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체육 분야 상호협력 추진

태권도진흥재단-한국체육대학교 업무협약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은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안용규)와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정국현 사무총장과 한국체육대학교 안용규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선수들의 등·하계 전지훈련 태권도원 유치와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 상호 교류 등에 대한 활발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정국현 사무총장은 “세계 최고의 체육대학을 지향하는 한국체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더욱 활발한 교류를 희망한다”라며 “태권도원의 우수한 훈련 여건과 자연환경이 학생선수들의 체력과 기량 향상 등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체육대학교는 다양한 체력훈련 코스와 피트니스 센터, 70만평의 자연 등 훈련성과 확대에 있어 최상의 여건을 갖춘 태권도원을 찾아 2019년부터 산악훈련을 비롯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역시 한국체육대학교가 주최하는 생활태권도국제포럼 참석 등을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우주=전문선 기자



14일 오후 충북 진천군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협피연하우스에서 도쿄 하계 올림픽대회 G-100 미디어데이 대한민국선수단 합동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 장인화 선수단장, 이기용 대한체육회장, 신치용 선수촌장,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펜싱 국가대표 구본길.

도쿄올림픽 D-100... “목표는 금메달 7개 10위권”

올림픽 선수단, 진천 선수촌 미디어 공개 행사서 선전 다짐

한국 ‘태극전사’들이 오는 7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0도쿄올림픽대회 G-100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지난해 7월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1년 연기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인원을 제한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용 대한체육회장, 신치용 선수촌장, 정인화 도쿄올림픽 선수단장,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기용 회장은 “도쿄올림픽 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한국 선수들이 5년 가까이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100일 후면 그동안 노력했던 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이어 “도쿄 사정이 여러 악조건 속에 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에만 집중해서 본인이 목표했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치용 선수촌장은 “금메달 7개, 종합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 7개를 획득하면 10위에서 12위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실망 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태극전사들은 올림픽을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뉴시스

펜싱 구본길은 “개인적 목표는 개인전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다. 단체전에서는 무조건을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이다. 런던올림픽 때처럼 모든 선수들이 메달을 걸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탁구 신유빈은 “단체전 결승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단식은 아직 누가 나갈지 모르지만, 출전을 한다면 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체조의 간판 양학선은 “체조에서 기대 주가 워낙 많아 금메달은 아니더라도 메달은 조금 나올 거 같다. 개인적으로는 런던올림픽 때처럼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수영 황선우는 “수영은 메달이 나오기 힘든 종목이다. 결선에 올라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모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광현, 시즌 첫 출격 확정 18일 필라델피아전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부상을 털어내고 시즌 첫 등판에 나선다. 14일(한국시간) CBS스포츠에 따르면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김광현이 18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던 김광현은 허리 통증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다.

개막 로스터 대신 부상자 명단에서 2021시즌을 맞은 김광현은 재활을 거쳐 컨디션을 다시 끌어 올렸다.

시뮬레이션 게임 등으로 투구 수를 늘려갔고, 지난 12일에는 8개의 공을 뿌리며 실전 등판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김광현이 합류하면서 세인트루이스는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한다. 2차재 선발 등판에서 6⅓이닝 8실점으로 부진했던 혼세 데 레온이 볼펜으로 이동한다. /뉴시스